

[나와 《길림신문》]

■ 김금단

《길림신문》과 나의 글쓰기 인연

문학이라는 길로 나를 이끌어준 《길림신문》과 부족한 글에 아낌없는 고무격려를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버지는 일찍 군인이었다. 맏아들인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더는 공부할 수 없게 되자 그날로 맨발 바람에 군에 입대하였다. 그렇게 장장 8년이란 시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다가 무훈군인으로 퇴대를 한 후에도 부대에서 신문을 읽던 습관을 버리지 않고 중문으로 된 《길림일보》를 주문해 읽으시었다.

내가 어렸을 때 온 마을의 편지며 잡지며 신문 모두가 우리 집으로 배달되었다. 아버지는 밭일을 하면서 쉴 틈을 리용하여 늘 신문을 손에 들고 계셨고 율바자 옆을 오가는 마을의 한쪽들에게는 중국어로, 조선족들에게는 우리말로 신문에서 읽은 내용들을 말씀해주시곤 하였다. 신문은 말을 못하지만 아버지를 통해 말할 줄 아는 '산 신문'이 되었다. 중문으로 된 신문이라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었던 나는 어느 날 아버지와 우리글로 된 신문으로 바꿔달라고 졸랐다. 아버지는 이 딸의 간절한 요구를 받아들여 어느 날부터 우리글로 된 《길림신문》을 바꿔주셨다. 《길림신문》이 도착하면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가족의 이 손 저 손으로 옮겨지면서 우리들은 신문을 올리훔고 내리훔였다. 그렇게 읽은 《길림신문》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문학이라는 세포를 심어주었다.

연변대학을 다니면서도 나는 도서관에서 《길림신문》을 꾸준히 읽었다. 부지런히 책들을 읽고 날마다 일기 쓰기를 견지한 덕분에 22살에 학교에서 꾸리는 《중소리》잡지에 나의 첫 수필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그후 《중소리》잡지에 실린 수필이 《길



저자 김금단

립신문》 문학면에도 얼마든지 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어느 날 오후, 연변일보사 청사에 위치한 《길림신문》문학면 편집부를 조용히 찾아가서 푹푹 노크하였는데 정장차림의 편집선생님이 웃는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다. 나의 의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수줍어하면서 글을 보여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글을 읽으시더니 잘 썼기에 발표해준다고 하면서 꾸준하게 글을 쓰라고 고무격려해주었다. 그렇게 나의 처녀작인 수필 〈고통〉이 처음으로 《길림신문》문학면에 발표되었고 '나도 글을 쓸 수 있구나!'라는 자신심이 생겼다.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하였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글씨도 아주 멋있

게 쓰시고 중문에 능통하셨으며 신문을 통하여 시골에서도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키우셨다. 자식들을 공부시키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셨고 어느 날에는 신문에서 딸애의 문학작품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10년전에 《길림신문》을 주문해드리려고 아버지에게 전화했는데 시골에서 신문을 주문하는 사람이 없어 더는 배달이 안된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여건이 될 때까지 장장 20~30년간 《길림신문》의 애독자였다.

140평방미터 아파트 대출에 딸애를 키운다고 힘들었던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글쓰기가 나한테 다가왔다. 마음속 생각들이 무르익어 강한 충동을 느낄 때면 방문을 잠그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종이에 적었다. 2008년도 해주에서 심수로 퇴근하는 길에 태풍으로 인하여 다리가 물에 막히게 되자 심수 집앞 고속도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보지 못한 채 스쳐 지나 세번이나 고속도로를 오고 가면서 어렵게 집에 도착하였던 일을 적은 수기, 2016년도에 한족 친구의 가족과 함께 해변가를 다녀왔는데 차가 막혀 한시간 거리를 다섯 시간 동안 친구의 남편이 운전하였던 일을 적은 수필, 2021년도에 《길림신문》에서 기획한 '사랑 + 릴레이' 계열 행사중 하나인 〈선생님께 고마움 전하기〉 글쓰기에서 금상을 받은 짧은 글, 2023년에 심수시조선족배구협회에서 홍보부의 직책을 맡고 배구 활동에 관한 기사를 적은 글 등이 《길림신문》을 통해 발표되었다.

한편의 글은 생생한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이다. 《길림신문》에 발표한 회수는 얼마 안되지만 발표된 글들은 그래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낀 회로에락을 적은 나의 인생사이다. 아버지가 이어준 《길림신문》과의 인연으로 인하여 문학이란 길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23살에 교단에 서면서 학생들에게 글짓기를 흥미진진하게 가르칠 수 있었으며 지금도 책을 즐겨 읽고 나름대로 글을 쓰고 있다.

글쓰기에 대한 흥취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견지해온 덕분에 현재 무역회사에 근무하면서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 문학이라는 길로 나를 이끌어준 《길림신문》과 부족한 글에 아낌없는 고무격려를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전망대]

리그 1위와 맞붙는 연변팀, 부담 덜고 대응하라



제 8라운드 연변팀과 섬서련합팀간 경기 한 장면

/ 김파기자

5월 17일 저녁 7시 30분,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중경시 동랑룽체육장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경동랑룽팀(이하 '중경팀')과 2025 화운음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9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7승 1무로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경팀과 홈장 3연승으로 사기가 진작된 연변팀의 대결이라 수많은 축구팬들의 관심을 모으는 경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제 8라운드 경기에서 중경팀은 연변팀을 4:0으로 이겼던 광주표범을 원정에서 5:1로 대파하며 리그 선두를 굳건히 지켰다. 따라서 중경팀은 슈퍼리그 진출의 강유력한 후보들인 룽닝철인과 광주표범을 모두 물리친 유일한 팀으로 되었다. 연변팀에는 막강한 적수가 아닐 수 없다.

썸바도르 감독은 중경팀의 사령탑을 잡은 후 젊은 선수들을 중용하고 '윙플레이+하이프레싱'(边中结合+高位逼抢) 전술체계를 구축하여 팀의 칼날을 예리하게 하였다. 중경팀의 다양한 방식의 득점이 그 점을 증명하고 있다.

광주표범과의 경기만 보아도 코너킥으로 자책골(26분)을 유도하고 중앙 돌파로 득점(30분), 직접 프리킥 득점(37분), 역습 득점(54분), 문전 배합 득점(73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득점하였다. 주요 득점자는 8골을 기록한 21살 나니 향여망(7번), 5골을 기록한 카리레(40번), 3골을 기록한 원기룡(38번) 등이다.

중경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젊은 혈기라고 할 수 있다. 문지기 효호양(18세), 수비수 장영개(21세), 류명사(21세), 화효강(22세), 미드필더 백여도(18세), 장지웅(18세), 송번(21세), 오영강(20세), 리진진(21세), 공격수 오우의(19세) 등이 그 대표들이다.

이 젊은 선수들이 명활한 몸놀림과 정확한 패스 배합으로 상대 진영을 파고드는 동시에 측면 돌파로 금지구역 안에 공을 수송하여 득점 기회를 만드는 공격 전술은 상대 수비진을 기진맥진하게 한다. 중경팀은 4-2-3-1 진용을 위주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팀인데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항상 상대를 몰아치는 습관이 있다.

홈장 3연승으로 중위권에 오른 연변팀이 상대의 여러가지 특징을 잘 분석하여 약점을 찾고 관건적인 선수들에 대한 대인방어 등으로 상대 공격 진영이 로골적으로 우리 금지구역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면 비교적 만족스런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태국기자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2025년 길림성 대학생 줄다리기 선수권대회가 장춘공업대학 남호캠퍼스 체육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전 성 15개 대학에서 온 306명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결과 힘으로 체육정신을 해석했다. 을조 훈합 580키로그램급에서 우승한 장춘사범대학의 지문청선수는 "줄다리기는 힘의 거름일 뿐만 아니라 단체협력의 시험이기도 하다. 우리는 상대팀의 특징에 비추어 끊임없이 리듬을 조절했다. 이 영에는 팀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 길림일보

길림성 의무교육 공개학생모집 전문행동 전개

최근 길림성교육청은 2025년 의무교육 공개학생모집 전문행동에 대한 배치를 진행했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점사업이 포함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역을 획분한다. 교육자원이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룬 지역에서는 단일학교 구역 분할을 시행하여 합리적으로 학업 기대를 안정시키고 교육자원이 충분히 균형을 이루지 않은 지역에서는 여러 학교 구역 분할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구역간 량질의 교육자원의 대체적 균형을 추진한다.

질서 있는 모집 기제를 건전히 한다. 의무교육학교가 그 어떤 명목으로든지 학생모집시험을 조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각종 경연대회, 등급시험, 장려증서 등을 학생 입학 또는 진학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2025년 가을학기부터 의무교육 다자녀 가정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정책을 실시한다. 각지는 시험면제 근거리 취학, 학구입학(学区入学), 자원신청, 공평공개의 원칙에 따라 시급에서 통합하여 현마다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학교에 여유 학위가 있는 전제하에 조직적으로 실시하여 학부모가 아이를 등·하교시키는 불편한 문제를 해결한다.

공립과 민영 동시 모집을 전면적으로 락착한다. 지원자수가 모집계획을 초과한 민영학

교는 컴퓨터 무작위 모집을 실행하며 학교 심사비준지역의 주관교육행정부문에서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특수군체 입학을 보장한다. 이주자녀의 무교육 입학 정책을 락착한다. 동등한 조건하에서 장에 아동과 소년의 학생모집구역내 가까운 학교 입학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학생모집사업 규률을 엄숙히 한다. 각 지역은 교육부의 '10가지 엄금' 사업 요구를 엄격하게 락착하고 학생모집 규률을 가일층 엄숙히 하며 규률검사감찰 등 부문과 함께 학생모집 과정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강도를 높인다.

/ 길림일보

